<별첨>

외신 동향

□ The big freeze_Wage Stagnation (Economist 14.09.06)

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임금 정체 현상과 디플레이션 위기 가능성에 직면

- 선진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**임금 정체**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

  · 장기적으로 볼 때 실질임금은 **생산성** 속도에 맞추어 상승하기 때문에 영국은 '07년 이후 **생산성**이 **악화**되면서 **실질임금**이 **하락**할 수밖에 없었으며 재정위기에 놓인 유로 국가들도 경쟁력 회복을 위해 **노동비용 감축**이 불가피

  * '10-'13년 OECD국가들의 실질임금은 정체(OECD,2014.09)를 보였고 이중 미국이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과 유로 국가들은 하락 (특히 포르투갈, 스페인 그리고 영국이 급격한 하락세)

- 그러나 최근 선진국(이탈리아, 영국 제외)에서는 노동생산성이 개선세를 보이고 미국, 영국 등에서 실업률 감소 등 **임금 하락압력**이 **완화**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임금 증가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더하여 유로지역은 **디플레이션 우려**까지 확산

  * 미국은 실업률이 '09년 후반의 10%에서 6.2%까지 하락했지만 민간부문의 명목임금은 연 2% 이내의 증가율로 금융위기 이전(3.5%) 대비 낮은 모습이고 영국 또한 실업률이 8.4%에서 6.4%로 하락했지만 명목임금 증가율은 위기이전 수준인 4%에 한참 못 미치는 연평균 0.6%에 그침

  · 미국보다 영국에서 임금 정체 현상이 더욱 심각한 원인으로 상이한 **노동공급** 현상을 지적

  * 영국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64%로 종전 최고 수준을 회복하면서 상승 추세인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3%p 하락하여 63%대 수준으로 과거대비 낮은 수치

  · **美 연준**은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명목임금이 더딘 노동시장 개선을 나타낸다고 보아왔으나 최근 옐런 총재의 "**억눌린 임금 디플레이션**" 발언 이후 향후 임금 상승 가능성에 무게

  * 고용주는 경기침체기 동안 임금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 시에도 임금 상승을 억제 예) 스페인의 임금 동결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'08년 3%에서 '12년 22%까지 상승

  · **일본**도 **디플레이션 탈피**를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쓰고 있지만 **임금 상승**은 **부진**한 모습

  * 정규 임금은 0.7% 상승에 그치며 회복세에 놓인 물가상승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

  · 물가상승률이 0.3%에 그치며 **디플레이션 위기에** 놓인 **유로지역**에서는 최근 이자율 인하를 단행한 **ECB가** 2%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**과감한 통화정책을 운용** 할 가능성

⇨ **임금정체**는 **정부**의 소득세, 사회보장수입 감소 등으로 이어져 **공공지출**에 영향을 주고 **가계**의 **소비지출** 또한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**선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**은 **임금정체 현상**이 **개선**되는 것이 **전제** 되어야 함